



< 녹 취 문 >

과제명	2025년 미추홀학산문화원 '옛'동양제철화학과 학익동, 용현동 일대의 변화'		
구술자	박 병 만 (인천노동협회 부설 노사문제 연구원)		
면담자	정 지 선	면담지원자	조연희
면담일시	2025. 09. 10.	면담장소	학산문화원 동아리실 2
녹취문 작성자	정 지 선	회차	2회차

1. 시작멘트 : 일시 및 연구진 소개 (00:00:05~00:00:38)

면담자: 시작하겠습니다. 본 면담은 2025년 인천광역시 미추홀 학산문화원의 주민 구술 채록을 위한 인터뷰입니다. 옛 동양제철화학과 학익동, 용현동 일대 도시의 변화에 대한 기록을 위해 관련된 분들의 이야기를 구술해 주실 분은 박병만 회장님이십니다. 일시는 2025년 9월 10일 수요일 10시이고 장소는 학산문화원입니다. 본 인터뷰는 미추홀 시민기록단 정지선이 하겠습니다. 지원자로 미추홀 시민기록단 조연희 님이 함께하겠습니다.

2. 개인 신상 및 부모님에 대한 기억 (00:00:39~00:08:38)

구술자: 반갑습니다.

면담자: 네. 반갑습니다. 구술 기록을 위해 성함과 생년월일 그리고 출생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구술자: 네. 이름은 박병만이고요. 생년월일은 54년 3월 11일. 출생지는 인천시 남구 학익동 569번지입니다.

면담자: 네. 감사합니다. 학익동 토박이시네요?

구술자: 그렇죠.

면담자: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셨나요?

구술자: 그때 당시에 어머니, 아버지, 누님들 둘.

면담자: 네. 형제, 자매는 세 분만 있으셨던 거죠?

구술자: 네.

면담자: 아버님의 고향은 어디세요?

구술자: 아버님은 충청남도 당진군 천의면이고, 어머니는 정미면입니다.

면담자: 네. 천의면, 정미면이요. 그럼 부모님께서서는 인천으로 어떻게 올라오게 되신 거예요?

구술자: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충청이나 전라도 쪽에서 인천으로 이주하려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거 같아요. 인천이 어떻게 보면 나라에서 중심지 되는 지역에 가깝고 하니까 웬만하면 인천으로 왔었죠.



면담자: 배편도 있었고요.

구술자: 그때는 육지 교통편은 거의 없다시피 했고, 주로 다 배편으로 이동했죠.

면담자: 그래서 서울까지 가는 것보다는 인천으로 더 들어오기가 쉬웠나 봅니다.

구술자: 그렇죠.

면담자: 군산, 당진 이런 데서 많이들 올라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구술자: 네. 인천에는 주로 서산, 당진, 태안 출신들이 많죠. 옛날에 전임 안상수 인천시장도 태안 출신이고, 뭐 많습니다. 어쨌든 간에 인천에 소위 좀 잘 나가는 사람들은 충청도 사람들이 많죠.

면담자: 향우회 같은 것도 하시나요?

구술자: 향우회가 있는데, 저는 제가 인천 출신이라는 긍지를 가지고 있어서 저는 안 해요.

면담자: 그러시구나. 예전에는 형제 중 한 명이 도시에 올라와서 자리를 잡으면 나머지 형제들을 다 도시로 불러들이는 게 있었잖아요?

구술자: 네. 저희 아버님이 7남매 중에 장남이셨는데, 아버님이 먼저 우리 가족을 데리고 인천에 정착을 하고, 동생분들이 형님, 오빠 따라서 인천으로 다 왔어요.

면담자: 아! 역시 다 인천으로 오셨군요.

구술자: 네. 그래서 7남매가 다 인천에서 살았어요. 저희 집이 장남이고 또 제가 장손이다 보니까 무슨 집안일만 생기면 전부 저희 집으로 오니까 어머니께서 고생을 엄청 많이 하셨죠. 집안 친척들도 인천에 한 번 올라왔다 하면 저희 집으로 오니까, 하여튼 뭐 시골벽적했어요. 다 뒤치다꺼리하시느라고 저희 어머니가 고생을 참 많이 하셨지요. 여담입니다마는 저희 아버님이 생활력이 좀 강해야 어머니도 좀 편하게 살았을 텐데, 생활력이 좀 없었어요. 워낙 약주를 좋아하셨고요. 집 근처에 조선 철강이 있었는데, 거기 다니시면서 자주 약주를 드셨죠. 옛날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집에 뭐 쌀이라도 넉넉하게 갖다 놓고 이래야 하는데 쌀도 떨어져 가지고 저희 어머니께서 밖에 나가서 떡 장사도 해가면서 그거 팔다 남은 거 가져와서 그걸 끼니로 먹은 그런 기억도 있어요. 아주 어렸을 때지만요.

면담자: 어려운 시절이었네요.

구술자: 어려웠죠. 하여튼 어머니가 참 고생을 많이 하셨죠. 근데 제가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야 아버님의 존재를 알았어요. 그전까지는 가정에 소홀하셔가지고, 정말 아주 싫다 할 정도로 막 그랬어요. 어렸을 때 기억이 아버님이 손찌검을 하려고 그러면 제가 가서 아버님 허리를 잡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들어 갔을 때 잡으면 꿈쩍 못 하셨어요.

면담자: 아! 중학교에 가니까 힘이 세져서 아버님이 놀라셨겠네요.

구술자: 저희 아버님이 약주를 좋아하셔서 그렇지, 제 부모님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인간적인 면이 너무 좋아요. 남한테 너무 잘한 거지요. 돌아가신 다음에야 제가 그걸 느낀 거지만요. 사전면담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병원에서 장례를 5일 동안 있었어



요.

면담자: 아! 네.

구술자: 그때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가지고, 거의 하나 같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훌륭하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너희 아버지 참 좋으신 분이였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건 본인들한테 잘해주니까 그렇겠죠. 저한테는 아니었는데. 하여튼 그때 ‘아! 가장이라는 게 밖에 나가서도 잘해야 되는데, 특히 가족한테도 더 잘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참 존경해요. 세상 사는 방법이 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돌아가신 다음에 남들한테 인정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거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느꼈죠. 웬만하면 남하고 좀 나쁜 관계를 안 가지려고 많이 했죠. 그런 영향을 좀 많이 받았어요.

면담자: 그러셨겠네요. 되게 이른 나이에 아버님을 여의셨어요.

구술자: 제가 73년도에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그 해 돌아가셨으니까요. 졸업하고 나서 한 달인가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돌아가셔가지고 전혀 뭐 어떻게 해볼 저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참 안타깝죠. 그 관계로 해서 군대도 부선망독자(父先亡獨子)로 면제가 된 거고 여러 가지 영향이 많죠.

면담자: 네. 군대를 가야 하는 처지에서 어머님을 또 건사해야 하고 아주 많은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구술자: 아니! 저는 그래도 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저희 매형과 주변 분들이 나서 갖고 ‘어떻게 저 어르신 놔두고 갈 수가 있냐? 억지로 안 되지만 법으로 할 수 있는 건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저도 모르게 군대 면제를 신청한 거예요. 그걸 나중에 연락을 받고 알았지요.

면담자: 매형이나 누나 또는 친척분들이 인천 가까이에 살고 계셨어요?

구술자: 그렇죠. 인천에서 거의 살고. 큰누이하고 큰매형은 가까운 데 살았어요. 용현동에서 사셨으니까 차로 가면 한 10분밖에 안 되는 곳이었어요.

면담자: 용현동. 아! 그러셨구나.

3. 중, 고등학교 등굣길 풍경과 어린 시절 동네 친구인 박공예 명장 강은수에 관한 이야기 (00:08:39~00:11:57)

면담자: 사전 면담할 때 학익동 주변에 관한 이야기들을 조금 해 주셨는데, 혹시 인하대학교의 모습이 기억나는 게 있으실까요?

구술자: 그냥 어렴풋이 나죠. 저희가 학교를 걸어 다닐 때도 인하대학교 관내를 거쳐서 갔으니까 대학교 자체는 기억이 나죠. 제물포 쪽으로 가다 보면 그길로 가야 해요.

면담자: 아! 중학교 갈 때요?

1) 아버지가 돌아가신 외아들



구술자: 중·고등학교 다요.

면담자: 중·고등학교 다닐 때 걸어 다니셨어요?

구술자: 주로 많이 걸어 다녔죠.

면담자: 동인천이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제물포인가요?

구술자: 제물포예요.

면담자: 동인천 중학교가 제물포에 있었나요?

구술자: 지금은 다 옮겼지만, 옛날엔 거기 있었죠. 지금 선인 재단 있잖아요? 거기에 있었어요. 바로 옆에 선인이랑 박문여고도 있었고요. 박문여고하고 우리 학교하고 앞뒤로 붙었었어요.

면담자: 여학생들도 많이 보셨겠네요?

구술자: 그렇죠. 학교 다닐 때는 많이 봤죠. 우리 학교하고 박문여고 담은 붙어있었으니까 가까웠어요. 그래서 아는 사람들도 많지요. 여담이지만 친구 중에 공예 명장이 있어요.

면담자: 공예 명장이요?

구술자: 박 공예²⁾라고, 박 공예.

면담자: 공예요? 박으로 만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구술자: 조롱박 이런 거 있잖아요?

면담자: 인천 분이신 거죠?

구술자: 그럼요. 같은 동네예요. 남자로 치면 불알친구라니까요.

면담자: 학익동? 이름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구술자: 강은수.

면담자: 강은수. 아직도 연락하시는지요?

구술자: 아! 그럼요. 계속 만나지요.

면담자: 아직도 그 박으로 공예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술자: 그럼요. 그 친구 한 사람밖에 없어요.

면담자: 어디 사세요? 지금?

구술자: 지금은 저기 서구청에 있는데 살아요. 근데 하여튼 어려서 이만할 때부터 같이 컸으니까 지금 뭐 오래되었죠.

면담자: 우와.

구술자: 대단해요. 친구지만 아주 자랑스러워요. 대한민국에 박 공예 하는 사람은 그 친구밖에 없어요.

면담자: 그러니까요. 박 공예는 처음 들어봤어요.

2) 농산물로 만든 유일한 열매 공예. 투각, 인두화, 조각 등 다양한 기법 표현은 물론 회화의 구성요소인 선, 면, 명암을 조각 기법과 낙화 기법을 이용하여 입체적으로 표현하며 투각 기법과 채색 기법까지 사용하는 전통 종합예술



구술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그런 것 좀 보여드리고 설명해 드릴게요. 거기를 도우려고 하는 자문 위원을 구성해서 내일도 오후에 그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에요. 인천의 명장들이 한 지금 8명 정도 되는데, 그 박 공예하는 친구도 제가 시의원 할 때, 공예 명장 타이틀을 땀쥰.

면담자: 강은수 명장님도요? 와! 되게 멋있네요.

구술자: 학익동 출신이니까 자랑스럽죠.

면담자: 너무 자랑스러운데요.

구술자: 그러니까 만약에 기회가 되면 제가 여기 문화원에 한 번 소개해 드릴게요.

면담자: 네. 감사합니다. 멋있습니다.

구술자: 그 친구가 만든 작품은 정말 예술적이네요.

면담자: 네. 학익동 얘기하니까 옛날 생각나시나 봐요. 그래서 친구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 인하대학교 때 걸어 다니셨고.

구술자: 네. 주로 걸어 다닐 때 그 길로 많이 걸어 다녔고. 조금 여유가 있을 때는 송도 6번 버스 타고 송의동까지 가서 거기서 또 걸어 들어가고 그랬죠.

4. 학익동에 있었던 공장에 대한 기억 (00:11:58~00:14:20)

면담자: 인하대학교에서 축제하면 연예인이 와서 노래도 하고 그랬던데 혹시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구술자: 아니! 뭐 그런 거 있었는데, 저는 한 번도 그런 데를 안 가봤어요.

면담자: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분들 인터뷰하다 보니까 장미 아파트가 있었던 자리가 예전에 ‘철 만들고, 철 녹여서 만드는 그런 회사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혹시 이름이 기억나세요?

구술자: 저도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면담자: 왜냐하면 한국 강업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구술자: 한국 강업이 옛날에 말했던 조선 철강 거기거든요? 지금 한국 파이프 들어보셨어요?

면담자: 네.

구술자: 그게 최종적으로 휴스틸이라고 바뀌었는데, 지금은 그 회사가 송악에 가 있어요. 서해대교 아시죠? 서해대교 바로 건너자마자 당진 현대제철 있는데 바로 옆인데, 처음에 거기가 조선 철강이 있었거든요. 나중에 한국 파이프 하다가 휴스틸로 바뀐 거예요. 근데 그 장미 아파트 자리에 뭐가 있었긴 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면담자: 네. 거기가 한국 강업, 삼성 제강, 대한 제강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기억되고 있더라고요.

구술자: 조그만 기업이었는데.

면담자: 예. 작았다고.



구술자: 한국 농약은 아시죠?

면담자: 네. 한국 농약 바로 건너편이에요.

구술자: 건너편에?

면담자: 그러니까 장미 아파트가 이쪽에 있고, 인하대가 있고 그 옆이라고. 그래서 그곳을 여러 구술자분한테 물어봤는데 다들 기억이 다르시더라고요. 아니면 거기 회사가 이름이 많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요.

구술자: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 저도 정확하게 기억 못 해요. 그 근처에 있던 회사들 중에서 대표적인 회사가 한국 농약이었어요.

면담자: 네. 농약회사는 다들 기억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 거기서 일 많이 하셨더라고요.

구술자: 옛날에는 많이 했죠.

면담자: 여성분들도 많이 하셨고요.

구술자: 네. 잘 아시겠지만, 농약 사업이라는 게 계절 사업이기 때문에 바쁠 때는 다 모아서 해요. 한 몇 개월 하고서 해산하고, 또 필요할 때 모으고 그런 거니까 어떻게 보면 정식 직원이 아니었던 거죠.

면담자: 네. 일용직.

구술자: 네. 일용직으로 해서 그렇게 운영을 했어요.

면담자: 아! 그랬구나. 그래서 부업을 거기서 많이 하셨구나.

구술자: 그렇죠.

5. 명문 중·고등학교에 가게 된 배경과 가슴에 품었던 꿈 이야기 (00:14:21~00:20:35)

면담자: 동인천 중·고등학교가 누구나 쉽게 가는 학교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떤 계기로 그 학교에 가려고 마음을 먹으셨는지요?

구술자: 저희가 오리지날 학익 초등학교인데 학생 수가 많지 않았어요. 1, 2, 3반! 세 반밖에 없었지요. 학생 수도 정확하게 정확한 팩트는 아니지만 한 160명? 그 당시에는 중·고등학교는 순위가 있어 가지고 상위 클래스면 그걸 지원할 수 있는 거죠. 학교에서 보내줬어요.

면담자: 아! 성적이 상위 클래스에 있으면 그 학교로 간다?

구술자: 담임 선생님들이 '너는 이 학교 가라! 이 학교에 지원해라!' 이렇게 해서.

면담자: 아! 그럼 추천으로 가게 되신 거네요?

구술자: 그렇죠. 그런 게 주를 이뤘죠.

면담자: 공부 잘하셨나 봅니다?

구술자: 초등학교 때 공부 잘했어요. 그런데 중학교 가고 나서부터는 자꾸 떨어지게 됐지요.



면담자: 그래도 고등학교도 좋은 데 가셨잖아요?

구술자: 그렇죠.

면담자: 성적이 계속 떨어지기만 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구술자: 사전면담에서 잠깐 그런 말을 했지만, 동인천중·고등학교를 나오면은 자기 의지만 있으면 다 대학교 갔어요. 그때 친구들 만나면 거의 한 70~80%는 최소한 인하대학교까지 다 갔으니까요. 그런데 당시에 저는 대학교 갈 전혀 생각을 안 했어요. 가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구애를 안 받는데 하여튼 그런 상황이었어요. 물론 가정적인 환경도 있었지만, ‘굳이 뭐 난 대학을 갈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안 갔습니다.

면담자: 혹시 그럼 고등학교 때 학교 다니면서 다른 걸 좀 해볼까? 이런 고민 같은 걸 하시는 게 없으셨는지요?

구술자: 그렇게 고민 같은 건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어리고 젊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렇게 장래에 대한 무슨 불안감이나 그런 건 느끼지 못했어요. ‘언제든지 마음먹으면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 일단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아버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선은 내가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니까. 먹고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뭐 일단 옛날 동일레나운³⁾에 취직을 했죠.

면담자: 네. 화신 레나운⁴⁾ 말씀하시는 거죠? 혹시 어린 시절 꿈이 있으셨나요?

구술자: 꿈이야 뭐 다 여러 가지죠.

면담자: 궁금합니다.

구술자: 꿈은 다들 다양한 거 가지잖아요? ‘난 군대 가면은 계급 높은 장교가 돼서 뭐 해보고 싶다.’ 그것도 일종의 꿈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어렸을 때 진짜 삼성, 현대 뭐 이런 큰 대기업들 그런 회장들 특히 이건희 회장 같은 양반들은 많이 봤잖아요?

면담자: 이병철 회장님이랑 이건희 회장님이요?

구술자: 그런 분들. 막연한 동경이라 가히 상상도 못 하지만. ‘할 수 있다면 나도 뭐 회장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도 하는 거지요.

면담자: 아! 네.

구술자: 그게 현실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지만 그런 거를 조금씩 꿈꾸고 그랬죠.

면담자: 꿈이잖아요. 그러면 아까 ‘공부를 잘 안 했어!’라고 하셨지만, 따로 동인천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시험도 보고 입학 준비 같은 걸 다들 했다고 하던데, 선생님은 어떤 준비를 하셨어요?

3)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동에 인천공장이 있었던 여자용 정장 제조업체. 1973년 11월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동 430에서 화신 레나운 주식회사로 설립된 외국인 투자 기업으로 주 업종은 여성용 정장 제조업임. 1981년 2월 25일에 회사 이름을 동일 레나운 주식회사로 변경함

4) 동일 레나운의 전신



구술자: 근데 저희는 뭐 그렇게 큰 준비를 안 했어요. 담임 선생님들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된 다라는 생각이요 선생님이 ‘이리 가라! 너는 여기 가!’ 막 이렇게 하면 네! 네! 네! 하고서 따 라가는 거지요.

면담자: 아! 그렇게 가셨구나. 왜 조금 더 연배가 있으신 80대 정도 되는 분들을 만나면요, 그 분들은 ‘내가 진짜 열심히 공부했잖아!’ 이렇게 얘기들을 하세요.

구술자: 초등학교에서는 솔직히 그거는 좀 저기고. 제가 보는 관점은 좀 그래요. 순수하게 어 릴 때 뭐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하는 친구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저는 솔직하게 그랬어 요. 그런 데 대한 큰 욕심도 없었고. 그러니까 뭐 나쁜 표현을 하자면 그렇게 공부에도 관심 이 별로 없었어요. 에피소드지만, 제가 5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강남식 선생님이셨는데, 그때 IQ 검사를 했었어요. 우리 반 애들 다. 그때 제가 IQ가 136이나 나와가지고 학교에서 너는 아 주 천재라고 다들 그랬어요.

면담자: 와! 그 당시에는 높은 편이었을 것 같아요.

구술자: 그런 식으로 담임 선생님한테 얘기 듣고 했는데, 잘 모르겠지만 저는 공부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어요.

면담자: 공부하는 게 어렵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머리가 좋으니까 막 열심히 하지 않으셨나 봐요.

구술자: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것들이 내 생각에 의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거꾸로 되더라고요.

면담자: 네. 잘한다! 잘한다! 똑똑하다 하니까.

구술자: 이게 거꾸로 되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되면 아주 완전히 거의 하위로 갔었지요.

면담자: 네.

6. 첫 회사 화신 레나운에서 했던 일과 OCI에 취직하게 된 배경 (00:20:36~ 00:26:42)

면담자: 고교 졸업 후에 화신 레나운에 취직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하셨던 업무는 무엇이었 나요?

구술자: 화신 레나운이 주로 옷을 만드는 곳이에요.

면담자: 아! 옷을 만드는 곳이었어요?

구술자: 그러니까 옷의 원재료죠. 원단이에요.

면담자: 원단을 만드는 공장이었군요.

구술자: 편집기로 짜고, 최종적으로 염색 · 가공해서 판매하는 건데, 저는 그런 기계 만지고 하는 걸 참 좋아했어요. 지금도 그 영향이 있어 가지고 뭐 만들고 이러는 걸 참 좋아해요. 물론 그 당시는 제가 가족을 부양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감으로 시작을 한 거고요. 제가 아버



지를 보고 느낀 게 진짜로 생활력을 가진 남자가 가정을 책임져야 한다는 그런 고정관념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뭘 하든 제가 속해 있는 곳에서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자' 그래가지고 4년 동안 정말 열심히 했어요. 12시간 동안 맞교대로요.

면담자: 와! 엄청나게 고생하셨겠네요.

구술자: 네. 근데 어느 날 너무 힘든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면담자: 개인 시간이요?

구술자: 네. 개인 시간도 없고, 하다못해 친구들 한 번 만나려고 해도 참 어렵고. 그런 생각을 하는 와중에 OCI를 들어가게 된 거예요.

면담자: 그때 당시에 OCI였나요? 그때는 동양화학이었죠?

구술자: '동양화학 공업 주식회사'였어요.

면담자: 네.

구술자: '오리엔탈 케미컬 인더스트리' 그래가지고 그 약자만 딴 거예요. 그래서 OCI가 된 건데 그때는 거기 들어가니까 천국이 따로 없더라고요.

면담자: 동양화학은 12시간 맞교대가 아니었나 보네요?

구술자: 8시간 교대 근무였어요. 12시간을 맞교대하는 데는 진짜 눈 한 번 못 붙여요. 순간적으로 막 지나가서 눈 붙였다가는 큰일 나요.

면담자: 기계 앞에서 일을 하시니까 그런가 보네요.

구술자: 사람이 다치는 게 아니라 제품 자체가 망가지는 거예요.

면담자: 아. 그렇군요.

구술자: 그래서 참 힘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밤에 나가서 12시간 동안 근무를 하면 낮에 하루 종일 자야 해요. 그래야 버티지 안 그러면 못 버텨요. 그 정도로 힘들었죠. 그러다가 동양화학에 들어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면담자: 동양화학에서는 8시간씩 3교대로 일을 하신 건가요?

구술자: 3조 3교대였어요.

면담자: 아! 3조 3교대.

구술자: 3조가 교대로 가면서 8시간씩 하니까, 공장에서는 24시간 계속 생산하는 건데. 이야! 정말 표현 많이 하면 천국이 따로 없더라고요.

면담자: 그러면 동양화학 처음 갔을 때는 어떤 일을 하셨던 거예요?

구술자: 생산직이죠.

면담자: 소다회 생산의 여러 공정 중에서 어느 파트에서 일을 하셨는지요?

구술자: 사전면담 때 지도에서 봤던 타워라는 중심부였어요.

면담자: 아! 타워요.

구술자: 중심 프랜트에 파트가 몇 개 있는데, 제품을 만들어서 포장실 가기 전 단계에서 우리



가 작업을 해서 최종적으로 칼사이나 플랜트에 연결해 주는 그런 역할이었어요.

면담자: 그 가루로 나온 제품을 포장실로 연결해 주는 건가요?

구술자: 아니 포장실까지는 안 가고요. 건조시키는 곳을 칼사이나라고 하는데.

면담자: 아! 타워에서 칼 사이나 보내는 그 라인에 계셨던 거예요?

구술자: 그게 타워예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제가 맡은 업무는 타워에서 칼사이로 보내는 그 역할이에요.

면담자: 아! 네. 이해됐습니다.

구술자: 거기에 3개 파트가 있었는데, 한 자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돌아가요.

면담자: 업무가 바뀐다는 건가요?

구술자: 업무가 변해가면서 이것저것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분야를 제일 오래 했어요. 오래 하고 나서 제가 노동조합으로 갔어요.

면담자: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럼 몇 년 정도 타워에서 근무하신 거예요?

구술자: 제가 78년도 5월 달에 입사를 했고 88년도에 노동조합으로 갔어요. 현장에서 있다가 간 거죠. 그때는 위원장으로 간 게 아니고 사무국장으로 갔어요. 다 어느 회사나 마찬가지로 위원장이 바뀌면 집행부도 다 바뀌잖아요? 당시 제가 모셨던 분이 떨어져서 저도 현장으로 다시 갔지요.

면담자: 아! 그렇게요.

구술자: 그럼요. 그게 조직이라 그러는 건데, 그건 다 어느 회사나 마찬가지예요. 지지했던 사람이 떨어지면 함께 했던 사람들은 다 흩어져야 하죠.

면담자: 그럼 다시 타워로 가신 거예요?

구술자: 네. 다시 타워로 갔어요. 그때는 원래 했던 업무가 아니라 다른 데 가서 다른 일을 했어요.

면담자: 네. 혹시 같이 일했던 위원장님 이름이 이진홍 맞나요?

구술자: 이준흥.

면담자: 아! 이준흥 위원장님이요. 알겠습니다.

7. OCI의 운동회에 대한 추억 (00:26:43~00:29:08)

구술자: 지금 기억이 우리나라에서 88년도에 '88 올림픽' 했잖아요? 그때 우리 회사도 계열사가 많은데 그 계열사들 다 불러서 인천에서 운동회도 했었어요. 그때 제가 사무국장이었으니까 사회도 맡아 하고 그랬죠.

면담자: 인천 어디서 하셨어요?

구술자: 회사 옆에 운동장이 있었어요. 현재 4층 건물이 아직 있잖아요?

면담자: 네.



구술자: 그 근처가 운동장이 있었거든요.

면담자: 되게 넓은 공터던데 거기서 직원들이랑 다 같이 체육대회를 하신 거죠?

구술자: 그렇죠. 그러니까 인천뿐만 아니라 우리 각 계열사도 다 불러가서 하고.

면담자: 완전 재밌었겠네요?

구술자: 재밌죠.

면담자: 네. 주로 그때 어떤 경기를 하셨어요?

구술자: 씨름부터 시작을 해서 축구, 달리기 그런 몇 가지 되지는 않지만,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 경쟁하고 운동한다는 게 좋은 의미니까요. 같은 계열사였지만 서로 경쟁해서 이기려고 막 그랬어요.

면담자: 주로 어디 지역 근로자분들이 잘했었어요?

구술자: 그게 조금씩 잘하는 게 다 달랐으니까요.

면담자: 분야가 다른 거죠? 인천본부는 어떤 경기를 잘했어요?

구술자: 아니 그러니까, 어떤 특별하게 잘하는 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씨름이다 그러면 씨름에서 특별하게 잘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더 잘하게 돼요. 그리고 해마다 하는 건 아니지만 다른 지역으로 다니면서도 체육대회를 했어요.

면담자: 와! 체육대회가 큰 행사 중의 하나였을 것 같아요.

구술자: 근데 우리가 타 지역으로 가면 여러 게임에 다 참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두 게임 선수들 위주로 해서 지역으로 가는 거죠. 대신에 인천에서 주최해서 하면 우리는 다 참여하고요. 탄 사업장들은 좀 이렇게 추려서 보내고 했던 그런 참 즐거운 추억도 있었어요.

면담자: 우승하면 부상 같은 것도 잘 줬어요?

구술자: 어! 그렇죠.

면담자: 주로 어떤 걸 줬는지요?

구술자: 그거야 주로 생활필수품이죠.

면담자: 생활필수품? 혹시 여기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 옥시크린? 이런 건가요?

구술자: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은 없어요. 소다회를 줄 거야? 뭘 줄 거야?

면담자: 아! 그렇죠.

구술자: 기념품을 사서 주는 거죠.

8. OCI에서 했던 과업과 노동조합 활동을 하게 된 배경 (00:29:09~00:34:55)

면담자: 화신(동일)에서 OCI에 입사했을 당시엔 업무 변화가 좀 크잖아요?

구술자: 그렇죠. 아주 생소하죠.

면담자: 어렵지 않으셨어요?

구술자: 젊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적응하는 거야 빠르죠!



면담자: 네. 똑똑하셨으니까요.

구술자: 아니 그런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동일레나운 다니고 할 때는 제가 뭐 저기해서 그런 게 아니라 몇 군대를 옮겼어요. 좀 할 만하면 '야! 너 저거 갖다 좀 해봐!'

면담자: 이것저것이요?

구술자: 네. 제가 남보다 일을 더 빨리, 많이 했었죠. 그런 건 괜찮은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반복되는 얘기지만 동양화학 들어가니까 천국에 간 것 같았어요. 물론 동일레나운에 가서 초등학교 친구들도 두 명인가 만났기도 했지만요.

면담자: 동양화학 들어갔을 때 노동조합이 오픈샵이어서 자동 가입하게 되어 있었더라고 하셨어요. 당시에 노동조합이라는 게 뭔지 인지한 상황이었나요?

구술자: 네. 그 정도는 밖에서 이미 알고 있었죠.

면담자: 아! 그러세요? 제가 예전에 다른 분야의 근로자를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노동조합 자동 가입에 대해 물어보니, '몰라! 나 그냥 사인했어! 근데 그게 그거였어!' 이렇게 하시는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구술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죠.

면담자: 네.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선생님은 어떠셨는지 궁금하고, 당시 사회에서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로 되어 있었는지도 궁금해서요.

구술자: 아! 구체적으로 노동운동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고 그런 건 전혀 없었어요. 내가 '무슨 노동운동을 해야겠다!' 그런 건 없었는데, 들어가서 가만히 상황을 보니까 '그런 것이 나하고 좀 적성에 맞는 것 같다!' 그래서 관심을 가진 거죠.

면담자: 어떤 걸 보고 '적성에 맞다'라고 판단하셨는지요?

구술자: 군대나 마찬가지로 이건 조직 사회잖아요. 어떤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의 조직 생활을 하려면은 그런 단체가 필요하다는 거를 상식적으로만 아는 거죠. 그리고 노동운동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소속감을 갖기 위해 단체에 들어가는 건 좀 필요하겠단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사용자와 노동자를 가르는 게 아니라 어쨌든 노동자라는 개념에서 본다고 그러면 그런 좀 인위적인 힘이 좀 필요하겠더라는 걸 좀 느꼈어요.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제 성격하고도 맞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더 관심을 가지고 한 거예요.

면담자: 그러면 그 당시에 노동조합에서 직원들을 교육한다거나 관련된 행동들을 좀 지속적으로 해 왔었나요?

구술자: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이나 뭐 이런 건 못해요. 워낙 교대 근무로 운영되다 보니까요. 조합원들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전체 다 모아놓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에, 대의원들이나 상집⁵⁾들, 주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했죠. 어떤 조직이나

5) 상무집행위원의 줄임말로 노조의 운영을 집행해 나가는 사람을 의미. 상집위원은 위원장을 대신하여



마찬가지지만 음으로 양으로 그런 게 필요해요. 사회 통념상 거의 상식적인 선에서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노사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조직적으로 할 필요는 있다. 거기에 따라서 노동조합이라는 조직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거를 좀 느꼈죠. 그래서 처음에 관심을 더 갖게 됐고, 그것이 제가 노동조합을 하게 된 결정적인 동기에요. 근데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게 다 인간관계 아니에요? 그게 조직 습성에도 필요한 거고 그래서 하여튼 여러가지 그런 영향 때문에 노동조합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위 회사에서만 하기에 조금 바운더리가 좁다라는 걸 느꼈죠. 제가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인천지역본부도 있고, 여의도에 있는 중앙 노총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보이더라고요. 그런 얘기까지 다 하자 그러면 뭐 시간이 많이 부족한데, 어쨌든 그렇게 관심을 갖기 시작해서 ‘이 OCI 노동조합은 내가 좀 이끌어야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바로 시작한 거죠.

9. 노동조합원에서 대의원, 상집 위원, 위원장이 되기까지의 활동 흐름 (00:34:45~00:39:12)

면담자: 88년도에 노동조합 들어가자마자 사무국장을 바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 전에 활동을 하셨던 거예요?

구술자: 아니요! 사전면담에서도 얘기했지만, 우선은 우리 타워 플랜트 대표가 대의원이 돼야 노조 간부가 되는 거예요.

면담자: 아! 타워 플랜트의 대의원이셨던 거군요.

구술자: 그렇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다 나이 먹은 선배들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선배님들! 제가 이번에 대의원 좀 나가겠습니다.’ 하니까 ‘어! 그래. 나가봐라!’ 그래서 대의원을 시작하게 된 거고 그게 평생 그만둘 때까지 하게 된 거죠.

면담자: 그것이 시작이었네요.

구술자: 시작이었지요. 그러니까 노동조합 들어가서 정확하게 한 2, 3년 있다가 대의원을 시작한 거니까요. 그렇게 노동조합을 조금씩 시작 했는데, 제가 모시고 있던 분이 떨어지니까 어쨌든 집행부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바뀐 사람이 좀 잘했으면 계속할 수도 있는데 워낙 좀 그랬어서 다시 집행부가 바뀌고 그랬어요.

면담자: 금방 또 다시요? 아! 그래서 88년도에 노동조합 사무국장을 하신 거예요?

구술자: 그렇죠.

면담자: 그러면은 회사 일을 안 하신 거예요?

구술자: 했는데, 그때가 기간이 짧았어요. 한 6개월인가 7개월?

각 부서의 고충이나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며, 노동조합과 회사와의 관계가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돕는 역할을 함



면담자: 사무국장 하는 기간이요?

구술자: 네. 왜냐하면 위원장 임기가 다 됐어요.

면담자: 아! 얼마 안 남아서 그러셨군요.

구술자: 그래서 그다음 해 3월에 다시 원대 복귀했죠.

면담자: 네.

구술자: 노동조합 조직이라는 게 위원장을 중심으로 상집들이 있어요. 무슨 부장, 무슨 부장 이렇게요.

면담자: 상집이 무엇인지요?

구술자: 상집은 노동조합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간부들이예요. 예를 들어서 직책을 치면 너는 조직부장, 너는 후생부장, 너는 교육부장 이런 직책들이 있어요. 이런 부장들이 상집인데, 한 10여 명이 있고 나머지는 대의원이에요. 그게 현장마다 다 있다고 했던 거예요.

면담자: 아! 뭘지 알 것 같습니다.

구술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게 교육이든 뭐든 전체 조합원을 몇백 명 되는 사람을 다 모아놓고 하기는 힘드니까, 우선적으로 상집들만 했던거죠. 어떤 조직이든지 다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저희도 예외는 아니었죠.

면담자: 네. 저는 상집이라는 단어가 생소했어요.

구술자: 상집 위원이라고 말해야 해요.

면담자: 상집 위원. 그러면 제가 말하는 게 혹시 흐름이 맞는지 봐주세요. 78년도에 입사를 하셨고, 2, 3년 지나서 타워 플랜트에 대의원을 하셨고, 그리고 나서 같이 활동했던 위원장님이 그만두셔서 잠깐 다시 타워 업무로 복귀했다가 88년도부터 사무국장을 하셨다고 했는데 맞나요?

구술자: 아니! 그때 88년도에 사무국장을 했는데.

면담자: 6개월밖에 안 하셨다는?

구술자: 예. 6개월 정도.

면담자: 그러면은 한 80년대 초에 타워 플랜트 대의원으로 활동하시다가 88년도까지 쭉 활동하신 거예요?

구술자: 그렇죠.

면담자: 그러다가 사무국장으로 6개월 만에 내려오시고 잠깐 또 하다가 그다음엔 어떤 역할이셨어요?

구술자: 그다음에는 제가 대의원이 아니고 상집으로 들어갔죠.

면담자: 아! 그다음엔 상집 위원이요.

구술자: 위원장이 바뀌었으니까, 사무국장은 안 하고 상집으로 들어갔어요.

면담자: 아! 그래서 상집으로 활동하시다가 위원장이 되신 거죠?



구술자: 그렇죠.

10. 노동조합 위원장이 된 배경과 활동 에피소드 (00:42:45~00:54:56)

면담자: 타워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검임으로 노동조합 사무국에서 활동하신 건가요?

구술자: 음. 그거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겠네요. 위원장이나 사무국장은 전임을 해야 돼요.

면담자: 전임이요?

구술자: 전임이라는 게 뭐냐 하면, 내가 하던 업무에서 완전히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한 6개월 동안 사무국장 할 때는, 타워에서 완전히 떠나서 노조 사무실에 가 있었어요. 위원장이 바뀌어서 다시 원대 복귀한 거죠.

면담자: 네. 이해가 됐어요. 감사합니다. 그럼 노동조합에서 계속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한 이유가 '회사 측이랑 대화하는 게 잘 됐다. 나는 그게 너무 즐거웠다. 그 부분이 적성이 맞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기억나는 일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억나는 것이 있을까요?

구술자: 그게 뭐 꼭 내세울 건 아니지만요.

면담자: 네.

구술자: 저는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뭐 특별한 어떤 이유에 의해서 변하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잠시 사무국장 안 하고 다시 현장에 복귀했을 때도, 그건 저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건 뭐 당연한 수순이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진정한 생각은 항상 노조에 가 있다라는 거였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 관리를 잘해야 되잖아요?

면담자: 일도 잘하시고요.

구술자: 네. 평상시에 관계를 좋게 맺고 서로 의사소통이 잘 되게 하는 그런 거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조직이라고 할 정도인 그런 관계를 현장에 다 많이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일정 부분 기회가 되면 위원장을 할 거다!'라는 것을 음으로 양으로 얘기를 많이 해 놓은 거예요. 남들한테 완전히 오픈시키는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었지만요.

면담자: 좀 친하신 분들에게만?

구술자: 네. 친한 사람들이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고맙죠. 그런 사람들이 끝까지 저를 믿어주고 했으니까요.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자기 혼자만으로는 안 돼요. 워낙에 벽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조직이든지 같이 동조해 주고 협력해 줄 수 있는 동료들이 있어야 가능하죠. 옛날하고는 지금 많이 달라졌지만 그게 가장 기본적인 조직 관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죠. 저는 그런 거를 참 아주 좋아해요.

면담자: 그런 걸 좋아하시는 성향인 것 같아요.

구술자: 인간관계라고 그럴까? 그런 거 참 좋아해요.

면담자: 근데 그런 거에서는 또 책임도 따르는 것 아닐까요?



구술자: 책임도 따르죠. 이거는 비하인드 에피소드인데 과거에 그런 건이 몇 건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가 계열사가 각 지역에 많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앞선 전임 위원장들이 자기한테 대들거나, 안 좋은 상황에 놓인 직원이 있으면 회사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발령을 내버리는 거예요. 연고지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인천에서 울산으로, 인천에서 군산이나 익산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런 일이 간혹 있었는데 참 보기는 안 좋죠. 지방으로 발령 난 사람들 보고 막말로 '저놈 또 뭐가 짝했구먼!'이라고 대부분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걸 표현하지는 않지만요.

면담자: 네. 다 알고 느낄 수 있죠.

구술자: 제가 위원장 하는 동안에는 지방 발령 이런 게 전혀 없었죠.

면담자: 그럼 92년도에 위원장에 처음 출마하셨던 계기가 무엇이였을까요?

구술자: 원래는 제가 모셨던 그분이 한 번만 더 하면 정년퇴직을 하실 연세였던 거예요. 근데 안됐으니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어요. 더 속상한 건 후임자가 회사하고 등을 저가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본인한테도 그게 아주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인정을 못 받고 그러다 보니까 3년 후에 자연스럽게 안되는 거지요

면담자: 그럼 기회가 선생님한테로 오게 된 거네요?

구술자: 그렇죠. 92년도였어요. 제가 그리고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소위 말하는 사람 관리! 그거를 진짜 거의 완벽하게 했죠. '아! 저 사람은 3년 후에는 참 힘들 것 같다. 3년을 준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면담자: 준비를 미리 하셨네요?

구술자: 그래서 무난하게 시작을 했죠.

면담자: 첫 출마에 바로 당선되신 거죠?

구술자: 아! 그럼요.

면담자: 네. 당선되셨을 때 느낌이나 그때 기분은?

구술자: 어떤 일이든지 그렇지만 먼저 큰 부담이나 책임감을 느끼잖아요? '내가 당선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가 중요하고 잘해야겠다.' 이렇게요! 기본적인 게 노사 간인데 처음부터 깨끗하게 나가면 안 되는 거고 어쨌든 가장 큰 목적은 회사의 발전과 종업원들의 발전이 동일하게 같이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회사는 커지는데, 종업원들한테는 안 좋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맞추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했죠.

면담자: 그러니까 조합 운영 방향을 임원진들이랑 다 같이 합의해서 회사도 살고 조합원들도 살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구술자: 네. 제가 평상시에 만날 때도 항상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절대 모나게 행동하지 말고 튀지 마라!'라고 말하고요. 대의원이고 뭐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속해 있는 파트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괜히 잘못된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요.



면담자: 못되게 굴지 말고요?

구술자: 그것도 세월이 많이 흐르면 많이 퇴색이 되잖아요? 그런 비하인드도 좀 있죠. 그래도 무난하게 잘 해왔다고 생각해요. 물론 어떤 조직도 조합원들이 '저 위원장은 100% 잘해!' 이런 건 없잖아요? 항상 일부는 불만이 있어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못 하는 거지. 왜냐하면 괜히 그 일로 인해서 더 파장이 커질까 봐 그런 거예요. 지금 이복에 있는 김일성, 김정은이 마냥 일당 독재로? 조직이라는 게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사회는 더욱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감안 했어요. 저는 항상 '모든 조합원들이 100% 만족을 못 느끼는 거다. 그건 당연하다. 그러나 과반수 이상 70~80%가 동의하면 그거는 위원장 직권으로 밀어붙인다!' 이렇게 늘 공식적으로 했어요. 회사에 오너들도 그런 면에서 저를 좋아했죠. 돌아가신 회장님도 참 좋아했고요. 제가 안타까운 거는 너무 그 양반이 빨리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면담자: 이수영 회장님 말씀하시는 거죠?

구술자: 네. 그분 아들인 이우현 회장은 그런 내용을 잘 모르니까 그런 점들이 참 안타까워요.

면담자: 혹시 첫 조합 위원장으로 뽑힐 때 공약이나 취임사가 기억나는 부분이 있을까요?

구술자: 오래전 일이고. 저는 뭐 이렇게 한두 마디로 요약한다고 그러면은 제가 솔직하게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만들겠다! 노든 사든 일방적인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어요. 예를 들어서 조합원들이 좀 불만족스럽더라도 이거는 우리 인천의 동양 인천공장만의 문제가 아니고 동양화학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걸 다 감안하려면 불만이 있어도 조금 양보 하자는 거죠. 간부들 모아놓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 건 웬만하면 사전에 얘기를 했죠. 특히 조율 문제는 이렇게 내놓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물론 있지만 그러지 못할 부분도 많고 그랬어요. 비하인드지만 예를 들어서 '상여금 10% 좀 더 줘야겠다!' 그걸 어떻게 내놓고 못 하잖아요? 그럴 때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을 별도로 만나서 '회장님 이번에는 특별하게 생각 좀 하셔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면담자: 그렇게 독대하셨겠네요?

구술자: 독대도 하고, 또 회사 측도 부사장이나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 노동조합하고 상대하는 임원도 있었는데, 그런 분들하고 얘기를 잘해서 '이번에는 내 힘으로는 좀 힘들어. 그러니까 위원장이 회장님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 봐!' 그러시면 '네.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게 좀 있었어요.

면담자: 관계가 좋으셨네요?

구술자: 네. 관계 좋았죠. 그게 참 지금 생각하면은 그분들도 참 아쉬워요.

면담자: 네. 옛날 생각이 떠오르시나 봅니다.

구술자: 옛날 생각 많이 나고. 그 전형적인 케이스가 홍규선 부사장님이세요. 그분 인터뷰하셨죠?

면담자: 네. 사전면담 때 지원 오셨던 시민기록단 표기자님이 인터뷰하셨었어요.



구술자: 홍규선 부사장님은 인천공장에서 진짜 오래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중간 역할도 많이 하셨어요. 지금도 간혹 시간 내서 같이 보자고 그러고 그러세요. 그럼 가서 만나기도 하고요.

11. 노동조합 위원장 이후, 한국노총 인천 지역 화학 본부장, 지역본부장직을 겸직했던 대외 활동 에피소드 (00:54:57~01:02:51)

면담자: 노조 위원장이 된 후에 하셨던 일 중에서 기억이 나는 일은 무엇일까요?

구술자: 아! 노총이라는 저희 조직이 상당히 여러 분야예요. 화학, 금속, 전자 뭐 하여튼 많아요. 한 스물몇 개 되는 조직이 있는데, 인천에 화학 본부라는 게 따로 있어요. 인천 지역 본부에 금속 본부, 화학 본부, 연합 본부 쪽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활동을 하면서 ‘화학 본부장을 한번 해야겠다!’ 그렇게 얘기해서 그때가 몇 년도야? 2000년? 98년도구나! 98년도에 화학 본부장을 시작했죠.

면담자: 그럼 그게 대외 활동이었겠네요?

구술자: 그렇죠. 공식적인 대외 활동이죠. 거기 본부장을 맡으면 매일은 아니지만 거기서 상주도 좀 하고 해야 해요. 그러니까 이중으로요. OCI 회사는 사무장한테 잠깐 맡기고요. 그런 역할을 시작해서 대외적으로 활동을 했어요. 그다음에 2005년도에 지역 본부 의장을 나갔는데 단일 후보로 나갔어요. 다 좋다고 그랬는데 한 보름 남겨놓고 일이 있었죠. 향운노동조합 아세요?

면담자: 네.

구술자: 거기서 한 후보가 일주일 정도 남겨놓고 출마를 한 거예요. 그렇게 붙었는데 제가 떨어졌어요.

면담자: 아이고. 그쪽이 워낙 많았나 보네요?

구술자: 네. 그쪽에 큰 조직들이 좀 붙고 해 갖고 제가 힘들었죠.

면담자: 향운 노조는 상당히 크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구술자: 그래서 그때 인간적인 배신감을 많이 느껴봤고. 또 가까운 사람들이 배신을 하기도 해서 ‘야! 이 이런 조직은 참 정말 아니다!’ 이러면서 제가 너무나 실망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있을 때 여의도에 있는 전국조직인 화학연맹에서 연락이 왔어요. 거기에 사무국장 자리가 공석이라 거기 위원장 하시는 분이 저보고 ‘인천에서 이렇게 됐으니까 거기 사무국장으로 좀 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거기 연맹에 가서 3년 동안 근무했죠. 여기 3년 의장 하는 기간이랑 같아서 왔다 갔다 하면서요. 그러다가 인천 화학 본부에서 2008년도에 여기 좀 다시 나와 달라 그래서 고민했죠. 제가 여의도에 간 마당에는 전국 조직이니까 그거를 생각해서 간 건데, 여기에 본사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 워낙에 하루가 멀다고 찾아오고 뭐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제가 마음을 바꿨지요. 그때 저를 많이 지지했던 사람들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내가 해도 되겠냐?’ 그랬더니 ‘어우! 하시라고’ 그래서 2008년도에 나왔어요. 당시에 1년 반 동안 위원장 대리한 사람하고 붙었는데 게임도 안 댔지요. 그래서 제가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3선을 했는데, 임기를 얼마 남겨놓지 않고 제가 시의원 들어갔어요. 그때 당시에 정년도 거의 다 댔고 그래서 굳이 정년 넘기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의원 들어가면서 바로 정리를 해버렸지요. 후임자로 사무국장한테 넘기고 지역 본부도 의장도 다 하라고 내놓고, 4년 동안 시의원을 한 거예요.

12. 한국노총⁶⁾ 인천지역본부장으로 활동했던 시절의 노동청 유지 관련 에피소드 (01:02:51~01:02:51)

면담자: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장으로 활동했을 당시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구술자: 제가 하면서 가장 큰 보람을 느끼는 건 뭐냐면 지금 인천에 노동청이 있잖아요?

면담자: 노동청이요?

구술자: 그 노동청을 경기도에서 가져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때 노동청이 가는 걸 제가 막았어요. 제가 지역 본부 의장하면서 가장 큰 업적이 그거 하나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는 거예요.

면담자: 인천 노동청을 경기도로 못 나가게요?

구술자: 네. 그때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힘을 썼는데, 특히 연수구에 있던 황우여 국회의원 아시죠? 지금도 연락 자주 하는데, 그때 그분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우리가 조직적으로 맨날 노총 앞에 가서 집회하고 시위하고 그래서 결국은 경기도에서 항복하고 다시 여기 존속하게 된 거예요. 여러 가지 있지만 그게 가장 큰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면담자: 그런 큰일을 해주셨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13. OCI 노동조합 위원장의 역할과 자부심 (01:02:59~01:07:19)

면담자: 우리나라가 국제 경제상 어려운 시기가 있을 때마다 OCI는 노사 협상을 잘해서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비결이 무엇이었는지요?

구술자: 그거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거죠. 어느 한쪽에서 맹목적으로 자기주장만 해서 안 되잖아요? 회사의 경영상황이 어려울 때 일정 정도 노동조합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단적인 예로 2000년도에 금융위기, 그러니까 세계 금융위기⁷⁾가 닥쳤

6) 한국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가장 오래되었으며 1953년 3월 8일 노동조합법 제정·시행 이래 첫 번째이자 1999년 11월 23일⁴⁾까지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했던 법정 노동조합 총연합단체

7) 2000년대 초 미국의 경기 악화, 새로운 정부 출범, 저소득층 주택 장려 정책, 초저금리 시대 장기화, 통화량 증가, MBS·CDO 등 파생상품의 발달, 개인과 금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 부동산 버블 붕괴



을 때 제가 먼저 제안했어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인데, 앞일이 뻥한데 우리 스스로 임금 인상 안 하겠다! 동결하자!’라고 말했어요. 제가 먼저 그렇게 흔쾌히 얘기하니 우리 사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놀라잖아요? ‘대신에 이 위기를 잘 극복하면 거기에 따른 충분한 보상을 우리 조합원들한테 좀 넘겨라!’ 그랬더니 ‘아유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면담자: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다 받으셨어요?

구술자: 그게 금액으로 따지면은, 얼마 안 되는 거지만, 기분이지요. 기분! 그래도 나중에 정상적일 때는 특별 보너스라는 것도 주고 그랬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 자신감이 뭐냐 하면, 제가 위원장이 되었을 때가 우리 회사 1년 매출액이 3천억이었어요. 근데 제가 위원장 그만둘 때는 3조가 되었지요.

면담자: 와! 몇 배예요? 10배를 늘린 거네요. 근데 3조는 상상이 안 되는 금액인데요.

구술자: 저는 그런 자부심은 있었어요.

면담자: 네.

구술자: 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처음에 위원장 되고 나서 초창기에는 파업까지도 준비했어요. 저부터 삭발하고, 간부들 삭발시키고 지부장들도 다 했었어요.

면담자: 그런 적이 있으셨어요? 워낙 관계가 좋으셨다고 그래서 그런 일은 없었을 줄 알았어요.

구술자: 그랬더니 회사에서 놀렸죠. 그때는 사회적으로 한참 좀 그랬어요.

면담자: 어떤 이유로 그때 파업을 하셨나요?

구술자: 보통 복지나 임금 쪽인데, ‘우리가 봐서는 임금을 이거밖에 안 올리면 안 된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특히 지역 지부가 있잖아요? 울산, 익산 이런 지부에서 ‘이건 안 됩니다! 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인천으로 다 불러갖고 ‘다 머리 삭발해!’ 그랬더니 회사에서 놀렸죠.

면담자: 그때는 힘을 한번 보여줘야 할 시기긴 하셨을 것 같아요. 노조 위원장으로 당선되고 난 직후니까요.

구술자: 그렇죠. 근데 실행은 안 됐어요.

면담자: 아! 그랬군요.

구술자: 이게 뻥한 건데. ‘우리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의지만 보이자!’ 였죠. 회사도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관계로 외적인 면은 상당히 좋았어요. 당연히 회사가 어렵다는데 우리 거 찾자고 무슨 파업을 그렇게 하고 해요? 그건 안 되지요. 그래서 저는 노총 의장 할 때도 항상 그랬어요. 지역에서 파업하는 조직들 많잖아요? 가면 똑같은 얘기를 해요. ‘회사가 지금 잘 되고 있냐? 안 되고 있다. 근데 왜 파업하냐? 꼭 굳이 파업밖에 길이 없냐?’라고요. 그렇게 그런 부분들을 음으로 양으로 처리를 하니까 시장 말고 있던 사람들도 저를 좋아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2007년, 2008년 세계 규모의 경제적 위기가 발생한 사건



했어요.

면담자: 노사 분류를 잘 해결하고 파업까지 안 가게 하니까 그랬나 봅니다.

구술자: 네. 괜히 문제가 시끄러우면 시장한테도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건 내가 내 입으로 얘기하는 건 좀 아니고 그냥 비하인드로 남겨두는 거지요.

면담자: 이렇게 협상을 잘하시고 안정화하는데 노력을 했다고 상도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구술자: 네. 그래서 안상수 시장, 최기선 시장에게 많은 상을 받았어요.

면담자: 서울 중앙에서 받으셨다고도 들었는데.

구술자: 물론 중앙에서도 받고요. 그거 뭐 장관이 주는 상도 받고, 또 경영자총협회⁸⁾가 있어요. 거기서도 받았는데, 아유, 아니 뭐 그런 것까지 다 얘기할 건 없어요.

14. OCI 노동자들을 위한 복지제도 마련의 어려움 (01:07:20~01:09:52)

면담자: 노조 위원장으로 하시면서 대외적인 것도 굉장히 활동 많이 하지만, 동양화학 안에서 복지 관련해서 노동자들의 휴게실이라든가 간식 제공 또는 화장실을 좀 좋게 한다거나 샤워실을 만들어 준다거나 하는 여러 상황들이 좀 더 개선되게 추진한 적이 있는지요?

구술자: 그 분야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미흡했어요.

면담자: 아! 네.

구술자: 진짜예요. 그건 제가 인정하니까요. 그런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작은 것을 얻기 위해서 큰 것을 손해 볼 수는 없는 거죠. 딱 그런 맥락만은 아니지만, 그런 걸 자꾸 주장하다 보면 나중에 탄 걸 못 하더라고요.

면담자: 아!

구술자: 그래서 저도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미흡함은 인정해요. 어떻게 따지고 보면 사실 복지 쪽부터 해야 하죠. 그런데 복지라는 게 정해놓은 게 따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본인들한테 얼마나 도움 되는 마음을 느끼냐? 이제 그런 건데, 미흡했던 건 맞아요. 근데 아주 그렇다고 해서 아주 극한 상황으로 가는 그런 건 아니었어요. 꼭 물질적으로 보답받는 그런 차원은 아니지만 어쨌든 모든 것을 병행해서 한다는 게 조금 좀 버겁게 느껴지기도 해서 조금 소홀했어요.

면담자: 활동하시다 보면 외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도 많고, 다 해주고 싶은데 못 해주는 것들도 있어서 위원장으로서 굉장히 내면적으로 어렵고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구술자: 네. 그건 정확한 표현이죠.

면담자: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구술자: 그게 참 약이 되면 좋은데 독이 될 수가 있어요.

8) 노사문제를 전담하는 전국적 사용자 단체로, 구술자는 노사 화합 및 산업 평화 정착에 이바지한 단체와 개인에게 시상하는 상을 한국경영자총협회로부터 받음



면담자: 어떤 의미일까요?

구술자: 주로 남들하고 비교하면서 얘기를 하면 단순 비교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우리하고 상황이나 이런 것이 전혀 다른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상당히 조심하게 되죠.

면담자: 그런 게 매우 힘드셨긴 했을 것 같아요.

15. 구술자가 말하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⁹⁾의 차이, 소다회 생산 중단 시기의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01:09:53~01:17:17)

면담자: ‘한국노총은 민주노총과는 때로 다르게 입장을 하고 있다’라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생각하잖아요? 구술자님께서도 한국노총 인천본부 의장도 역임하셨는데 그러한 차이점으로 인해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구술자: 나쁘게 말하면 뭐 노선이라고 그러고, 좋게 얘기하면은 뭐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 이런 차이죠. 우리 한국노총은 1940년대에 탄생이 된 조직이고, 민주노총은 90년대 탄생된 조직이라 갖고 있는 이념 자체가 상당히 좀 달라요. 차이가 많이 나죠.

면담자: 그러겠네요. 시대가 달라서요.

구술자: 그러니까 좋은 말로 얘기하면은 한국노총은 합리적이다. 민주노총은 비합리적이다. 이렇게 경영계 측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크죠. 쉽게 얘기해서 한국노총은 대화가 되는데 민주노총은 대화가 안 된다. 방법이 다른 거예요. 한국노총은 주로 파업 이런 걸 떠나서 구두상 해결하려고 하는데, 민주노총은 뭔가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파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니 그 성향 자체를 기업 하시는 분들 특히 경영계 쪽에서는 많이 안 좋아하죠. 아직도 마찬가지고요. 다행히 지금 노란 봉투 법¹⁰⁾ 이런 법들이 통과되고 민주노총 출신이 지금 장관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바뀐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직도 그 사고나 이념 관계, 개념 차이에서는 저희하고 잘 안 맞죠.

면담자: 완전 태생이 다른 거군요.

구술자: 네. 태생이 달라요. 비근한 예로 보면 건설 현장에는 건설 조직이 있어요. 한국노총도 있고 민주노총도 있고 그런데 그 대화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이건 우리 얼굴에 침 뱉기식인데. 노동조합에 관해서. 한국노총 회사들을 보면 건설회사하고도 협의를 잘하려고 하는 스타일인데, 민주노총은 건설회사의 비리나 뭐 이런 걸 다 미리 캐 가지고 있어요. 그게 협상 카드인 거죠. ‘당신들이 우리 말 안 들으면 이거 터뜨릴 거야!’ 이런 식으로 하니까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은 울면 겨자 먹기로 들어줘요. 거의 70~80%는 들어줘요. 그것이 그 조직으로만 끝나면 해결되는데 자꾸 연관을 지어요. 어떤 조직이든지 완벽한 조직이 없잖아요? 그런 정보를

9) 사회 개혁과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를 목표로 1995년 11월 출범한 진보적 노동운동 단체. 진보적 노동 운동계의 대표적 단체로서 모체는 1993년 6월 발족한 전국 노동조합 대표자 회의

1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조·3조 개정안을 가리키는 별칭으로, 노동자의 파업권 보장, 간접고용 노동자의 권리 확대, 손배 가압류 남용 방지 등을 목표로 하는 법 개정안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민주노총이에요. 한국노총은 그런 게 거의 없지요. 제가 노동운동을 한 사람이라서 그것을 뭐 '잘한다? 못 한다?' 하는 비판은 안 하지만 현실이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런 이념의 차이가 있어서 일반적인 시민들이나 이런 기업하는 분들이 많이 안 좋아하죠.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돼요.

면담자: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양화학은 1959년에 설립돼서 68년 박정희 대통령이 동네 왔었다고도 기억하시고, 인천 동장 방문했을 때 그 근처에 살았으니까 부모님께서 '박정희 대통령이 왔다 갔어!' 막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그런 기억도 갖고 계시는데 2003년에 소다회 공장 생산 중단을 선언했다고 들었는데 그때 노조 반응은 어땠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구술자: 단순히 회사가 이유 없이 소다회를 중단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면담자: 그렇죠. 원가 때문일 수도 있고요.

구술자: '상황이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공감대가 미리 형성이 됐고, 그러다 보니 '그냥 맹목적인 반대는 있을 수 없다'였죠. 나라의 정책이 잘못됐든 뭐가 됐든 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불가항력이지 않나? 그러니 대체 산업을 찾아서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하는 것 또한 경영하는 사람들이 책무고 할 일이니깐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가능한 한 그냥 유지시키면 좋겠지만, 안 되고 했을 때는 어쩔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면담자: 그러면 그때 미리 얘기가 돼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는데, 여기 인천공장에서 일하셨던 근로자들은 어떻게 되셨는지 혹시 아시는지요?

구술자: 참 그게 민감한 문제였기 때문에.

면담자: 아! 그래요? 물어보지 말까요?

구술자: 아니요! 그런 것까진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식적인 건데, 좀 강제성은 없지만 장래를 위해서 미리 퇴사할 사람들은 보상 차원에서 해준 경우도 있었어요. 많지는 않지만 불가피하게 그런 사람도 있었고, 연세 많이 드시고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은 명예퇴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제도 자체도 처음 도입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잘 찾아서 했죠. 당시에 소다회 생산 중단을 '야! 이거 안 돼!'라고 반대할 궁극적인 명분이 없었거든요.

면담자: 네. 알고는 있었을 것 같아요.

구술자: 그러니까 그전에 '야! 이건 진짜 회사 차원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하는 거니까 그런 절차를 밟았어요. 소다회 공장이 더 이상 소다회를 생산할 수 없는 여건이다. 거의 다 100% 찬성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동의받고, 조기 퇴직 같은 제도로 보상도 조금 더 해주고 그랬어요. 그런 제도를 활용해서 하자고 그래서 별 큰 무리 없이 진행이 됐어요. 그 소다회라는 품목 자체가 경제성이 낮은 걸 어떻게 하겠어요.

면담자: 그렇죠. 네.



구술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원인은 그런 것도 있어요. 워낙 환경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제가 회사 오너래도 그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아!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소다회 문 닫자. 더군다나 환경단체랑 시민들도 이렇게 반대하는 거 힘들어서 어떻게 하겠냐?' 그런 영향도 있었어요. 하여튼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가 작용해서 그렇게 됐어요. 결과론이지만 지금 다 매립해서 고층 아파트 들어서고 하나까 좋잖아요? 앞으로는 더 좋아지겠죠.

16. 구술자가 기억하는 OCI 1대, 2대 회장님과의 에피소드 (01:17:18~01:24:57)

면담자: 회장님에 대한 기억이 되게 애뜻하세요. 초대 회장님과 2대 회장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같이 대화를 많이 나누셨나요?

구술자: 얘기 많이 했죠.

면담자: 두 분이 차이도 있었을 것 같은데.

구술자: 어. 그럼요.

면담자: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기억나시는지요?

구술자: 우리 이회림 명예 회장님에 대해서는 저도 들은 얘기지만 이복에 계실 때 그 연배에 쌀 가게도 운영하셨대요. 그러다 인천에 OCI를 설립했다는 것이 참 남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참 존경을 해요. 왜냐하면 그 소다회를 만드는 공장 자체는 이렇게 큰 매립지 같은 데가 필요한데, 웬만한 사람은 언감생심 생각도 못 했던 부분이에요. 바다를 메워서 한다는 거 말이죠.

면담자: 땅을 만들 생각을 하셨다는 말씀이신거죠?

구술자: 그런 거를 주도적으로 하셨다는 그 자체가 참 대단한 뭐라 그럴까? '추진력이라든가 선견지명을 가지고 계셨다. 대단하신 분 아닌가!' 이렇게 옆에서 봐왔던 분들에게 얘기를 많이 듣고 해서 참 존경스러웠어요. 그리고 인천 상공회의소 회장을 두 번이나 하셨는데 부자가 똑 같이 했었어요. 사실 처음에는 아니었지만, 나중에는 제가 현장에 있으면서 '부자간에 상공회의소를 두 번씩이나 한다는 것은 정말 좋은 거니까 우리도 홍보를 많이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진짜 밖에서 시민들하고도 만나면 '이번에도 회장님이 상공회의소 회장 하셔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죠.

면담자: 홍보를 많이 하셨네요.

구술자: 네. 홍보 역할을 좀 했죠. 그분에 대해서는 주위에서 하는 얘기를 선배님들한테 많이 들었으니까 인정했기도 했지만 제가 실제 위원장 돼서 많이 접촉하다 보니까 '아! 그런 분이셨구나.' 하는 거를 제가 확인을 했고, 이수영 회장님은 사장하실 때부터 제가 계속 만났으니까, 누구보다도 잘 알고 그랬어요. 회장님께서 저에 대해 '당신 생각이 참 합리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인간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저를 상당히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상당히 존경을 했고 그랬어요. 회장님은 어떤 개인적인 사리사욕 이런 데 욕심이 없으셨어요. 연관된 얘기지만 '우리가 인천에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인천 시민들에게 음으로 양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계셨어요.

면담자: 그런 가치관을 갖고 계셨군요.

구술자: 네. 그런 가치관이 있어서 웬만하면 인천시하고 벽을 안 두고 합의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환경업체라거나 하는 여러 가지 선입감 때문에 더 그런 생각을 하셨던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시에서 원하는 웬만한 부분은 들어주고, 기부하고 하는 것을 출선수범하셨어요. 제가 다 옆에서 봤으니까 다 알죠. 제가 때로는 막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우리 종업원들한테 안 해주고 어떻게 인천시에만 다 해주시냐?'라고. 그건 뭐 농담이지만 그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고. 나중에 참 불미스러운 일까지 있었잖아요? 송영길 시장 때 세금 1,700억을 부과해서 회사가 휘청했다니깐요. 거기에다가 또 서울 본사 거기에도 법인세가 3,000억인가? 나와서 아주 회사가 휘청했어요.

면담자: 그걸 어떻게 견디고 다시 일어섰는지요?

구술자: 그러니까 이거는 뭐 개인이나 또 회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 법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대법원까지 갔잖아요?

면담자: 인천에서 매긴 세금 1,700억이요?

구술자: 예. 서울도 마찬가지로요. 대법원에 가서 판정이 났잖아요. 이거는 인천시가 잘못이다.

면담자: 보상받았어요?

구술자: 아니요! 그때 이의 제기하면 손해배상으로 몇백억 원 받을 수 있었어요.

면담자: 그러게요. 대법원까지 하면 굉장히 오랜 시간 싸웠던 것일 텐데.

구술자: 몇 년을 그렇게 했는데, 참 근데 답답한 게 우리가 이수영 회장한테 막 뭐라고 그랬어요. '회장님도 그 소송 기간 동안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상받아야 됩니다.'라고 말했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몇백억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우리 회장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받아야 되겠지만, 하지 마!' 그러니까 이 양반은 미래까지 보시는 거예요. '언젠가는 동양화학 부지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시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나중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얼마나 방해가 되겠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장님 회사에서 하지 마세요. 제가 할 테니까 제가 주도적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알았어~ 그래도 하지 마!' 이러셨어요. 저도 참 바보였어요! 그때 해야 했는데 회장님 말 듣고서 안 했으니. 그때가 유정복 시장이 먼저 할 때예요. 나랑 같이할 때예요.

면담자: 그때가 시의원 하실 때였던 거예요?

구술자: 예. 그게 17년도에 대법원에서 판결 났으니까요.



면담자: 그럼 가능한 시기였을 것 같은데요?

구술자: 그럼요. 그래서 ‘제가 받을 테니까 회사에서는 모른 척하세요.’ 그러니까 ‘어유! 제발 좀 그러지 말라. 문제를 좀 만들지 말라!’ 이러시는 거예요. 기업이 그런 거예요. 어떤 지방이나 마찬가지로인거죠.

면담자: 저희가 텔레비전에서 보는 삼성가도 막 이렇게 우러러보지만, 정부나 그런 거에 항상 딱 잡혀 있는 것을 본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구술자: 맞습니다. 그 기억을 제가 두둔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말 못 할 상황들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오죽 답답하겠어요? 제가 그 심정을 뻔히 알지요.

면담자: 네. 공감되셨을 것 같습니다.

구술자: 그래서 그게 참 억울해요. 지금도 뭐 다 알려진 상황이지만 사사건건 인허가 건 가지고 자꾸 늘어지고, 공사 못 하게 막아 가지고 얼마나 피해 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받을 거 다 받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17. 제7대 인천시의원으로 출마하게 된 배경, 재출마를 마다한 이유 (01:24:58 ~ 01:32:00)

면담자: 자연스럽게 시의원 이야기로 넘어가는데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제7대 인천의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출마하셨잖아요?

구술자: 그렇죠.

면담자: 그때 출마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였을까요?

구술자: 제가 막판에 부의장까지 했어요.

면담자: 인천시의회 부의장이요?

구술자: 네. 그건 뭐 몇 개월 안 되지만.

면담자: 그래도 시의원에 출마하게 된 계기가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구술자: 사실 저는 예전부터 정치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 정년과도 연결이 되더라고요. 지금은 정년퇴직이라고 해도 한참 젊은 나이지만, 예전에는 정년만 되면 금방 노인 취급을 받곤 했죠. 그래서 ‘야, 이게 너무 이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시기에 당에서 제의가 왔어요. 물론 그분들도 나름의 목적이 있었겠죠.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가자! 그런데 가는 마당에 다 정리하고 가자’라고 결심했죠. 그때가 정년까지 한 2년 정도 남았던 시기였어요. 개인적으로도 ‘이건 옳지 않다. 내가 정년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 2년을 남겨두고 회사를 떠났습니다. 회사에서도 겉으로 표현은 안 하지만, 속으로는 좋아했을 거예요. 고마워했겠죠. 사실 노총 의장도 계속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모든 걸 내려놓고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 이



후에 배신감이 컸어요. 제가 그렇게 정리하고 나왔으면, 뒤에서 좀 도와줘야 하는데, 모른 척하고 외면하더라고요. 그때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는 자책도 있었어요.

면담자: 그래서 재출마를 안 하셨던 거예요?

구술자: 네. 그래서. 시의원 되고 몇 개월 지난 그때부터 생각했기 때문에 '정치는 더 이상 안 해야겠다' 생각했죠. 뭐 장래를 생각한다고 그러면 별짓을 다 했겠지. 저는 그런 걸 안 하니까 뚝뚝하게 행동했어요. 저는 거리낄 게 없었기 때문에 시의원들 중에서 민주당보다 지금의 국민의힘 사람들하고 더 많이 가깝게 지냈어요.

면담자: 네.

구술자: 시의원을 그렇게 했어요, 그게 연결돼서 2018년도에 임기 끝나갈 무렵에 박찬대 의원이라고 학교 후배인데 그 후배가 '선배님 또 하실 의향이 있으면 제가 추천하겠습니다.'라고 제안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일언지하에 거절했지. 저는 처음부터 제가 잘못 들어왔다고 생각했고, 저하고는 적성이 안 맞았거든요. 왜냐하면 제 자신이 누구한테 가서 구질구질하게 다음 선거 때문에 이려고 하고 싶은 생각 요만큼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나? 한 3년 지나니까 좀 후회스럽더라고.

면담자: 아니요. 그 얘기는 안 하셨어요. 왜 후회하신 건지?

구술자: 왜냐하면 자꾸 옆에서 그런 걸 봐요. 제가 그때 '의원 생활을 더 했으면 도움이 필요한 곳을 충분히 도와줄 수 있고 하는 건데'하는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한다라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는 생각, 그런 생각 때문에 마음의 동요가 온 건데. 그게 확정 지은 건 아니고, 하여튼 지금 시작한다고 그러면 그 공백 기간이 엄청 크죠. 거꾸로 '이제 하세요!'라고 하기 전에는 제가 스스로 나서는 건 아니다 싶어요. 또 이거는 좀 저기하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여유가 있어서 돈이라도 써가면서 내 힘으로 내가 하겠다!' 이러면 또 모를까 '괜히 여러 사람들 주위 사람들 힘들게 하면서까지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면담자: 처음에 시의원 되신다고 하셨을 때 가족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구술자: 가족들한테는 제가 먼저 그런 얘기를 했죠. 정년도 얼마 안 남은 상황이었기 때문이에요.

면담자: 여러 가지 설명을 하셨군요.

구술자: '어떻게 보면 유종의 미가 될 수도 있으니까 나름대로 한 경험도 한번 해보겠다.' 이런 차원에서 그렇게 했고 식구들도 다 좋다고 해서 한 건데, 딱 들어가 보니까 아니잖아요?

면담자: 그때 그 가족이 자녀들도 같이 있었던 시절인 거예요?

구술자: 아! 그럼요.

면담자: 자녀분들이 어릴 때?



18. 결혼과 가족 이야기 (01:32:01~01:34:46)

구술자: 어! 그럼요. 지금 다. 저 할아버지예요. 손녀딸이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면담자: 그렇게 안 돼 보이셔서.

구술자: 안 보이죠?

면담자: 네. 이제 막 태어났을까? 뼈악이 정도 됐을까? 싶은데 빠르신 편이네요?

구술자: 빨리했죠. 저희 아들이 지금 40대 중반인데, 저랑 같이 늙어요.

면담자: 결혼을 언제 하셨어요?

구술자: 누가요? 제가요?

면담자: 네. 그런 거 물어봐도 되나요?

구술자: 아! 그래요. 제가 결혼을 빨리했어요. 79년도.

면담자: 입사하자마자 하셨네요.

구술자: 그렇죠.

면담자: 근처에 잘 아시는 분이랑 하신 건가요? 아니면 소개로?

구술자: 아니! 연애로.

면담자: 어떻게 연애하신 건지요?

구술자: 어떻게 알게 됐냐고요? 이것도 가정사인데. 초등학교 동창이었는데, 그 친구가 학교 졸업하고 여자 친구를 만나고 있었나 봐요. 개도 여자 친구를 굉장히 일찍 만났어요. 근데 어느 날 ‘야! 나 오늘 누구 만나는데 너 같이 나갈래?’ 해서 궁금도 하고 그래서 ‘한번 같이 나가 볼게’ 그래서 나갔더니 거기에 여자 친구랑 그 여자 친구의 친구도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처음에 보자마자 그냥 뽕 갔지요!

면담자: 첫눈에 반하셨구나.

구술자: 왜냐하면 머리를 여기까지 늘어뜨리고, 자주색 통바지에. 야! 무슨 영화 배우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진짜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어우! 눈이 번쩍! 처음에 그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결혼을 일찍 하게 됐죠.

면담자: 그러면 그때 일찍 해서 학익동에서 같이 사신 거예요?

구술자: 네. 그 집에.

면담자: 그래서 아이들이 빨리 낳으셔서.

구술자: 딸 하나 낳고.

면담자: 딸 낳고. 외동딸?

구술자: 개가 지금 중학교 2학년.

면담자: 그 집 그러니까 딸이 중학?

구술자: 아니! 우리 아들이.

면담자: 아들이 딸을 낳았고, 그 손녀가 중학교 2학년이라는 말씀인 거죠?



구술자: 신기하죠?

면담자: 네. 그렇게 나이 들어 보이지 않으셔서.

구술자: 다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19. 제7대 인천시의원 활동 당시 동양화학 부지 정리 관련 일화 (01:34:47~01:38:34)

면담자: 시의원 하실 당시에 동양 화학 부지 관련되어서 논란이 많은 시기에 하셨잖아요?

구술자: 그렇죠.

면담자: 그때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했을 것 같아요. 회사 측에서도 요청을 많이 하셨을 것 같고.

구술자: 아니에요. 회사에서는 그런 요청을 저한테 별로 안 했어요.

면담자: 아! 거의 안 하셨구나.

구술자: 거의 안 하고. 그냥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는 정보 같은 거나 좀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연락이 와서 제가 일부러 또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갔어요. 가서 봤는데, 굳이 크게 도와줄 게 없겠더라고요. 다 오픈된 정보들이라서요.

면담자: 아! 그랬군요.

구술자: 몇 번 찾아가서 차 한 잔 마시고 그런 거지. 제가 솔직히 도와주려고 마음먹었으면 진짜 저도 나쁜 거예요. 도와주려고 마음먹었으면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데도 그런 거를 안 했어요.

면담자: 네. 그게 정당한 건 아니라고 판단하셨을 것 같아요.

구술자: 그랬어요. 지금 같으면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내가 도와주죠! 왜냐하면 법을 위반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공무원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이게 뭐라 그럴까. 아 죄송해요.

면담자: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구술자: 뭐라고 그러죠? 뭐라고 표현할까요?

면담자: 갑질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구술자: 맞아요!

면담자: 큰 소리로 말하기는 그렇지만 딱 그 표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구술자: 맞습니다. 진짜 어떤 때는 상식에 안 맞는 게 많았어요.

면담자: 네. 구술자님도 'DCRE¹¹⁾가 동양화학 부지를 부동산 개발해서 좋아지고 있잖아?'라며 '괜찮잖아? 좋잖아?'라고 처음에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이런 환경들을 해결해서 사람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거에 대한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11) 동양제철화학(현 OCI)의 부동산 개발사



구술자: 그렇죠. 결과론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이게 기업을 하는 사람들의 아주 상식적인 논리지만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윤을 보자고 운영하는 거지 손해를 보자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주 상식적인 건데, 말했던 그런 것 때문에 너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요즘 제가 가끔 가서 보지만 전체적인 거를 봤을 때는 '이게 참 앞으로 인천시나 미추홀구가 삶의 질이 좀 좋아지지 않겠나?'라고 여러 가지 방면에서 그렇게 보는데, 그 과정이 좀 너무 심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현역에 있는 공무원들, 후배들, 퇴직한 후배들 이렇게 가끔 만나요. 만나면 그런 얘기들 좀 많이 하고 하는데 기업과 공무원들의 관계를 개선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말하는 거예요.

면담자: 네.

구술자: 근데 어쨌든 그래요. 지금도 보면, 이걸 일부에서 보면은 기업이 여길 개발해서 큰 이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물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결국은 지금 완전 마이너스거든요.

면담자: 네.

구술자: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뭐 해달라는 요구가 엄청 많으니까 그건 좀 못마땅해요. 제가 시에 있을 때 좀 많이 도와줄 걸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은 뭐 도와줄 그런 상황이 못 되니까 못하지만.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워요.

면담자: 기회가 왔으면 하는 바람은 있네요.

구술자: 저도 그래요. 기회가 오면 그러고 싶어요.

20. OCI 은퇴 근로자를 위한 모임에 대한 계획 (01:38:35~01:41:23)

면담자: 좀 전에 은퇴한 공무원들도 만나고 이런다고 하셨는데, 동양화학에 근무하셨던 분들은 은퇴 후에도 모임을 만드셔서 꾸준히 만나시더라고요. 오랜 시간이 흘러도 계속 만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구술자: 그게 어떻게 보면은 좀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이수영 회장님이 계셨으면은 제가 벌써 실행했을 거예요. 뭐냐 하면 OCI를 거쳐 간 직원들이 엄청 많잖아요?

면담자: 그렇죠.

구술자: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몇백 명이다 그러면 각자가 조그맣게 모임들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거를 하나로 다 끌어모으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어떤 물질적인 게 없으면 못 하잖아요?

면담자: 네. 후원금이 있어야지요.

구술자: 그런 것들을 해보고 싶은데, 오너가 바뀌었기 때문에 못 하는 게 참 너무나 안타깝워요. 그래서 제가 생각이지만 '지금 회장을 한번 만나볼까?' 그런 생각도 해요. 그게 뭐 꼭 되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그런 취지로 한다면 치면 또 가능성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



요. 비하인드로 우리 회사 출신들의 임원들 모임이 있어요. 옛날에 이회림 회장님이 생존에
계실 때 그 모임을 하라고 준거예요. 그걸 뭐 개인한테 준 게 아니고.

면담자: 모임에다가 주셨나 보네요?

구술자: 거기 모임에다가 10억을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걸로 사무실로 운영하고, 근데 절대
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계속 유지해. 그렇게 그런 자리를 만들어내는 거지요.

면담자: 네. 그런 자금이 있어야 모이죠.

구술자: 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또 임원 출신들이기 때문에 삶의 질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임도 잘 되고 있고. 근데 우리 현장 출신들은 사실 뭐 은퇴하면 전부 다 따로따로 부서
별로 모여요. 예를 들어서 공무부다하면 공무부 출신들만 모이고 생산부다 하면 생산부만 모
이고 이렇게 해요. 저는 참석 안 하지만 제가 그런 걸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
적인 생각에는 현 회장을 한번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면담자: 이번 저희 사업을 계기로 한번 다들 모이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거든요?

구술자: 그렇죠. 그게 자연스럽죠. 왜냐하면 그런 게 미리 댔다라고 그러면 참 큰 모임이 되었
을 텐데, 이제와서 그것 때문에 다 모이자고 그러면 좀 모양새도 그렇고. 저도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더라고요.

21. 은퇴 후 서산에 터를 잡고 살아온 이야기, 인천노동협회 활동에 대한 소회 (01:41:24~01:47:53)

면담자: 이제 인터뷰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시의원 임기가 끝나고 은퇴 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구술자: 제가 18년도에 그만둔 그 당시에는 딱 인천을 떠나려고 그랬어요.

면담자: 아니 학익동에 그 자부심이 있으셨던 분이요?

구술자: 왜냐하면 제가 늘 우리 부모님들한테 죄송스러운 게,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선
산이 바로 보여요. 그래서 제가 현역에서 은퇴하면 바로 여기 와서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정확하게 2000년? 아니지. 지금이 2025년이죠. 그러니까 십 한 8, 9년 전에 우리
선산을 봐주고 있는 분들한테 연락이 왔어요. 제가 평상시에 얘기해 났거든요. 거기 땅 조그
맴게 나면 제가 구입할 테니까 연락해 달라고 그랬더니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여기 땅 나
왔는데 살 의향이 있냐?’ 그래서 무조건 사겠다 그러고 가보니까 진짜 가깝고 좋아요. 그래서
무조건 산다. 그때 당시 평당 7만 원씩이니까 썼어요. 집 짓는 대지가 한 2백몇십 평 되고 앞
에 밭이 700평 돼요. 그걸 7만 원씩 주고 샀어요. 그러니까 뭐 몇천만 원이야? 하여튼 그거
사놓고 그 이듬해에 바로 거기에다 집을 지었죠. 그래 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은퇴하면
거기 가서 살기로 그렇게 다 계획을 세웠었어요. 왜냐하면 은퇴 후에 인천에서 살면서 뭘 해



야 되겠다는 생각은 전혀 안 했어요.

면담자: 네. 원래부터.

구술자: 욕심도 없었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딱 18년도에 끝나고 딱 갔는데, 이 인천노동협회 우리 선배들이 쪽 모임을 해왔던 게 있어요. 이게 우리 선배들이 만들어서 2019년도에 거의 40년 됐으니까 지금 몇 년이야? 거의 한 50년 다 돼가요. 그런데 제가 딱 은퇴했다고 그러니까 바로 연락이 와 갖고 '이거를 좀 당신이 해야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진짜 완강히 거절했죠. '저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하려고요' 하니까 '무슨 소리냐! 아직 젊은 사람이 말아야!' 이렇게 선배들이 번갈아 가면서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되면 또 인천을 왔다 갔다, 해야 하고 이게 참 힘든데. 근데 너무 권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냥 한 2, 3년만 하고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와서 보니까 너무 황당한 거예요. 아이고! 뭐 창피스러운 얘기지만 이걸 그냥 말만 협회지 뭐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면담자: 협회가 대부분 다 그렇죠.

구술자: 어유! 그래서 힘들었어요. 비영리단체라고 인천시에다 신고했다는데 그거 서류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다 만들어 놓고 회원 수를 하나하나 늘려가지고 체계를 좀 갖췄는데, 다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비영리단체라는 것이 최소한 어떤 일정 부분 수입이 있어야 운영이 되잖아요? 근데 내가 별 얘기 다 하네.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회비를 만 원씩 받아요. 근데 요즘에 만원 가지고 식사도 못 하잖아요? 어유! 하여튼 제가 6년 동안 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한 2년 하고 도저히 못 한다고 그랬더니 그냥 난리 치고, 저 때문에 들어온 사람들도 제가 그만두면 다 그만두겠다네. 그러면 또 깨지게 생겼어. 그래서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까지 가져가고 있어요. 어쨌든 올해 지나면 난 이제 안 한다고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면담자: 후임자가 있으신지요?

구술자: 후임자는 뭐. 서로 안 한다고 그러고. 내가 안 하면 다 빠지겠다고 그러고. 그것 때문에 지금 저도 아주 골치 아파요. 그런데 참 뻥한 거 아니예요? 이 살림이라는 게 어떤 수입원이 조금 있어야 사무실도 운영하고 하잖아요? 사무실은 그나마 우리가 노총 회관에 있어서 4층 건물을 우리가 쓰고는 있지만 그거 갖고는 안 되잖아요? 하다못해 무슨 여직원이라도 있어서 사무실 관리라도 해야 되는데, 없어요. 하아. 그래서 같이 일할 사람들 불러서 '너 사무차장해라!'하고 그냥 이렇게 해서 몇 사람 같이 의논해서 '야! 우리가 어떻게 좀 식사비라도 어떻게 우리가 추념이라도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해 갖고 끌어왔어요. 그래가지고 한 천만 원 정도 모았어요. 한 푼도 쓰지 말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빨리 그냥 그냥 다 내놓고 싶어요. 지금 제가 기회를 내년 초로 보고 있고.



22. 평생 노조 활동에 대한 끈을 놓지 않고 있는 이유 (01:47:54~01:55:25)

면담자: 은퇴하고 나서도 지금까지 노동협회 연구소 회장을 하고 계시는데 끊임없이 노사 분규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계속 몸담고 계셨잖아요?

구술자: 그렇죠.

면담자: 거기에 매진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선생님만의 가치관이나 철학이 있다면 무엇 일까요?

구술자: 그게 딱 단적으로 집어서 얘기하기는 좀 그런 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회 생활을 하면서 노동조합 그때는 뭐 노동운동이라고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하나의 근로자 대표로 일해보고 싶다는 그런 소박한 그 신념으로 시작을 했던 거고, 그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런 인간관계도 거의 그런 출신들하고 많이 하다 보니까 제 사고도 아마 그런 쪽으로 많이 된 게 아닌가? 생각해요. 단지 이제 그런 큰 욕심은 없는데 나름대로 어떤 단체라도 자생력이 있어야 되고, 그거를 좀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변함없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2019년도 인수한 거 하고, 비영리 민간단체를 다시 만들어서 시청에 내고, 그 장소가 구월동이기 때문에 남동공단하고 또 직접 연관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그냥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해봤어요. 그런데 아~ 현실의 벽이 너무 큰 거죠. 우리 사회가 그래요. 나이 먹은 사람들은 이렇게 좀 도와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선입감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야! 이거 노동단체는 좀 사람들과의 관계가 진짜 진실하고는 좀 거리가 먼 그런 얘기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가끔 제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느껴요.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안 되면은 참 힘들겠구나. 같이 노동운동을 했던 후배들조차도 딱 그냥 은퇴하면 나 몰라라 하고 다 떠나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그걸 누구를 탓할 수도 없는 거고, 어떻게 근본적으로 치열한 방법은 있겠죠. 누가 어디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금이 있어서 그런 체제를 만들면 되겠지. 다만 그런 것은 우리 개인들의 노력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이고, 실제 또 그런 괴리감이 있고, 되기 전에는 참 힘들지 않나? 안타깝지 않나? 누군가 도와줄 사람들이 그런 거를 좀 자발적으로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기회가 되면 해보고 싶다는 것도 그런 거예요. 이런 비영리단체나 이런 걸 정당한 방법으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야 된다 그런 거죠.

면담자: 몸소 느끼셨던 거를 실천하시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구술자: 그렇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학산문화원 같은 곳도 사실은 지나다니면서 뭐 하는 덴가 이런 궁금은 했지만 그걸 알아볼 기회도 없었고요. 근데 마찬가지로 비슷한 단체들이 좀 많아요? 근데 의외로 또 잘 지자체에서 도와줄 때도 많아요. 일례를 보면 대한노인회 같은 데는 정부에서도 도와주고 각자 많이 하니까 그런 데는 나름대로 잘 돼요. 근데 제가 노동계 출신이라고 보니 노동계는 안 되더라고요. 선입감도 안 좋고요.



면담자: 문화예술계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구술자: 네. 문화예술계도 그럴 거예요.

면담자: 그럼 조만간 일을 그만두신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계획이 또 따로 있으실까요?

구술자: 그만둔다고 하는데 그만둘지 모르겠어요.

면담자: 그럼 앞으로 계획은 따로 세우기가 어려우신 걸까요?

구술자: 아니 그래서 무슨 뭐 누구를 만난다고 되는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도 제가 옥련동에 살면서 아침마다 공원에 가면 나이 드신 분들이 다 '내년에 나가!'라고 말하셔요. 뭐 농담 반 진담 반하는 건데 이 양반들도 뭔가를 좀 원하는 거야. 그래서 배드민턴 치는 사람들이 하도 저한테 그러길래 연수구청장을 또 만났어요. 이재호 구청장도 잘 아니까요. 그래서 구청장한테 '이런 문제 좀 도와줘야 되겠어!'라고 했더니, 바로 공원 녹지과 불러가지고 좀 신경 써라 그래서 배드민턴장을 또 별도로 만들어 줬어요. 별로 좋지는 않지만요. 하여튼 그런 것도 조금 할 수 있으면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사실은 이영훈 미추홀 구청장도 만나려면 얼마든지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저 자신이 참 구차스럽더라고요. 구청장 되자마자 본인이 아쉬우니까 한번 전화해서 만나서 식사 한번 했어요. 원래 이영훈 구청장하고는 예전에 시의원으로 같이 일했던 적도 있거든요. 본래 구청장이 되었을때 적어도 서로 그런 인연이면은 아주 최저로 한두 번이라도 먼저 불러서 '같이 식사 한번 합시다' 이런 거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4년이 다 돼 가는데 연락이 없더라고요. 사람을 챙기는 게 기본적인 인간관계라고 생각하는데 말이에요. 너나 할 것 없이 진짜 사람 관리를 잘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어요. 김정훈 중구청장도 마찬가지고. 서구 강범석 구청장, 부평 뭐 다 그때뿐이더라고요. 이게 내 마음처럼 할 수는 없더라고요. '이거 인과관계가 웬만한 저기 아니면은 참 힘들구나!'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면담자: 네. 앞으로 그런 거까지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은 한번 해볼 계획은?

구술자: 네. 그럼요. 아직 제가 전화 한 통화도 안 했는데 아까 우리 나이 어린 회장부터 만날 계획도 갖고 있어요. 조만간에 한번 해보려고 해요.

면담자: 그럼 이걸 계기로 한번 하시죠?

구술자: 그러니까 한번 해봐야죠. 저도 그런 힘은 없지만 이제 학산문화원을 알게 됐으니까, 제가 직접 도움은 못 주지만 관심은 많이 갖고 앞으로 볼게요.

23. 학산문화원의 발전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인터뷰 마무리 (01:47:54~01:56:56)

면담자: 혹시 오늘 못다 한 말씀 있으셨어요?

구술자: 아니 뭐 저는 답변하는 입장이라서요.



면담자: 그래도 나 이 말은 꼭 하고 싶은데 이걸 남기고 싶은데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구술자: 아! 그럼 저는 그건 있어요. 학산문화원이 설립된 취지가 있을 텐데 여기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과연 그 취지에 맞게끔 잘 운영이 되고 있나? 또 어떤 방법으로 직·간접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까? 하는 것도 고민을 좀 많이 하시겠지만 같이 공유가 된다고 치면 기회가 되면 같이 의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봐요.

면담자: 네. 감사합니다. 그럼 긴 시간 인터뷰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터뷰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술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녹취문 내용을 세부 주제로 나눠 시간 기입

글씨체 : 함초롬바탕

글씨크기 : 세부주제-12pt(볼드체 적용) / 내용-10pt

줄간격 : 200%